

젊은날

백기원

또이면

논의하고 뽑아내고
바람처럼 번개처럼
뜨거운 것이 빛나던 때가 좋았다

하나를 알면

열을 행하고
개인을 이야기하면
역사를 들이대고

사랑이 튀기면
꽃본 듯이 미쳐 달려가던 곳

추렴거리도 없이

남지볶음 안주 많이 집는다고
줘어박던 그 친구가 좋았다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헐벗고 굶주려도
결코 전전하지 않았다

돈벌이에 미친 자는

속이 비었다 하고
출세에 연연하면
호로자식이라 하고

다만 통일 논의가 나라를 퍼면

환장해서 날뛰다 밤이내려
쭈고 떨리면 찾아가던 곳

식은 밥에 김치말이 끓는 화로에
내 속옷의 하얀 서캐를 잡아주던
말없는 그 친구가 좋았다

그것은 내 이십대 초반

민족상잔 직후의
강원도 어느 화전민 시대였지

열 여섯쯤 된 계집애의
등허리에 핀 부스럼에서
구데기를 파내주고
우리는 얼마나 울었던가

나는

일생을
저 가난의 근원과 싸우리라 하고
또 누구는 민중과 결혼한다 하고

화전민이 답례로 보낸

옥수수 막걸리로
한판 벌린 웅장한 이름드리 소나무
그 위에 걸린 밝은 달 흐르는 맑은 물
뜨겁게 부대끼던 알몸의 낭만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저 밝은 달 저 밝은
물만을 대상으로 노래할 수 없다며
허공을 쥐어박고

인간의 현장으로 뛰어들던
빛나던 눈의 그 친구가 좋았다

세월은 흘렀다
다시 강산에 폭풍이 몰아치고
이름있는 주소마다 자갈이 물렸다
더러는 먼저 가고 더러는 물려서서
바람이 차면 여울지던 곳

포구의 눈물이라는
늪다구리집
술값은 통일된 후에 준다 하고

한없이 굽이치는 이의 짓이란
마냥 그 모양이니 그러자 하고
이야기가 쭈뼛하면
슬며시 덧문을 달아주던
그늘진 그 얼굴

그후
그 집은 망했다고
술꾼들은 발이 빠졌다 하고
이 찬란한 파국을 미리 울던
그 여인이 좋았다

그래도 눈물은 분분했다
가파른 현장에선 독재와 싸우는 이들의 남모를
예지가 불을 뿜는데

한 번 스친 밤의 꽃을 못 잊어
소년원까지 찾아가서
꽃다발을 잔뜩 안고
서서 울던 그 친구를 생각했다

바로 거기서
정서적 방랑이나
이지적 결단이나
꼬리가 꼬리를 잇는 말수를
냉정히 자르고 떠나간 그 사람

오오, 그 확확 뚫던 억센 주먹이여
이제는 모두 다 어디서 무엇을 하기에
흰머리가 치마폭처럼 휘날리는 상기까지
삼십축 희미한 등불에 젖어
바시락대는 썩취소리에
거대한 역사의 목소리 일러 듣는 듯

그렇다
백번을 세월에 깎여도
나는 늙을 수가 없구나
찬바람이 여지없이 태질을 한들
다시 끝이 없는 젊음을 살리라
구르는 마룻바닥에

새벽이 별장게 물들어 온다

힘든 시절, 즐거운 기억들

민통련 시절, 나는 조직의 살림살이를 담당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들 활동비 챙기랴, 밀린 인쇄비 등 외상값 갚으랴 항상 쪼들리던 나날이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장이라도 더 유인물을 만들고 사람을 조직하랴, 거리에서 싸우랴 힘든 상황이라 어려운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고, 집회도 수없이 시도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수배되고 그 당시 민통련 동지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렇게 힘든 시절이었지만 지금도 그 시절 식구들을 만나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정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때 만나 함께 일했던 동지들과의 나날이 이제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힘을 주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함께 활동했던 선후배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를 끌어 주고 밀어 주며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